



철학 이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철학자의 '야심'

《일상의 모험》 낸
서강대 철학과 서동욱 교수

서강대학교 철학과 서동욱(37) 교수는 벨기에 루뱅대학교에서 프랑스 현대철학을 전공한 소장철학자다. 들뢰즈를 비롯한 프랑스 현대철학을 국내에 제대로 소개한 몇 안 되는 철학자 중의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 현대철학 연구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벨기에 루뱅에서 활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설의 유고가 보관되어 있는 루뱅대학 후설문서보관소야 말로 현대철학의 메카라 할 수 있다.

현대철학은 고전철학의 창조적 이해로부터

물론 서 교수가 '정통' 성을 주장하며 자기 학문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들뢰즈만 중요한 철학자도 아니고 또 들뢰즈에 들어가기 위해선 고전철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년째 한국칸트학회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서 교수는 총무이사를 맡으며 《포스트모던 칸트》를 기획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

“10명의 칸트학회 회원들이 쓴 책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박한 부

위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현대철학이 모더니즘하고 대립되고 또 칸트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현대철학은 칸트라는 고전철학에 대한 창조적인 독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 교수는 《포스트모던 칸트》를 통해 푸코, 들뢰즈, 리오타르, 라캉 등 현대철학자들이 어떻게 칸트를 창조적으로 흡수했는지 보여줄 생각이다. 칸트의 생명력과 고전을 창조적으로 흡수하는 유럽 현대철학자들의 방식들은 우리 철학계에 시사하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고전 연구가 바탕되고 또 창조적 작업을 용인해주는 자유로운 학문분위기가 있을 때 프랑스 철학 수용도 성과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게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철학자들의 생각이다.

“유행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실존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런 철학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학문의 성과가 누적되지 않고 유행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정도에 비해 남겨진 게 없는 건데 당시의 센세이션얼한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입니다. 프랑스 현대철학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데, 물론 다 그

런 건 아니겠지만, 팔아먹자는 의도가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한국칸트학회가 90년에야 생겼으니 그에 비하면 늦은 것도 아니다), 작년에는 한국프랑스현대철학회(회장 남기영 경희대 명예교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연구이사로 있고 경희대 철학과 최화 교수, 서울대 철학과 김상환 교수 등이 함께 뜻을 하고 있다. 비로소 프랑스 현대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서 교수는 <세계의문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세상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이 책의 운명은 철저하게 외톨이일 수밖에 없다”

서 교수는 철학 교수의 삶은 데카르트가 자신의 강의에서 말했다 “태어나서 일하고 죽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고 죽거나, 레비나스처럼 아우슈비츠에서 가족을 다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철학자들의 삶은 일상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조그만 상처나 괴로움으로 조각조각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꺼리’를 만들어내려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답은 번번이 ‘난감함’ 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음’이었다. 있다면 ‘독서체험’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대학에 와서 읽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그에게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욕망과, 논리 이상의 철학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는 단지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고 대답한다. 그렇다고 일상이 무미건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유는 더 깊이 가라앉았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폐활량을 필요로 한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서동욱 교수가 말하는 ‘이달의 책’ 《일상의 모험》의 ‘운명’이다. 철학적 공동체 담화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 교수의 의도는 “이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더욱 근본적인 층위의 것을 건드릴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는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심’이기도 하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체제를 철학이라 할 때 현대철학의 야심은 철학보다 더 배후에 있는 사유의 영역, 즉 학문으로서의 철학 이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층위까지 내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운명은 철저하게 외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제에서 ‘설명’하고 있듯, 이 책은 ‘태어나 먹고 자고 말하고 연애하며, 죽는 것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기하고 있다.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것들의 구원’이다. “지긋지긋한 일상”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사유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종교와 같이 제도적인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현생에서의 삶을 넘어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무한성과 초월에 대한 욕구이다.

프랑스현대철학과 루뱅대학

서동욱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가 ‘철학의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철학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만약 철학공부를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면 데카르트 등 그들의 국학이라 할 수 있는 고전철학을 전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 중에 프랑스현대철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는 현재 프랑스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대인이 실험한 현대철학을 ‘반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널의 나팔’에 의해 대중화된 학문이라는 비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비해 루뱅대학은 현대철학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후설의 유고가 보관된 곳으로 유럽 어느 대학보다 현대철학연구가 활발하고 또 장려되고 있다. 이곳에서 하이데거와 데리다가 후설의 뒤를 이었고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현대철학의 고전을 쓴 메를로-퐁티도 루뱅대학 후설 유고보관소를 방문해 미출간 원고들을 읽고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태어나 먹고 자고 말하고 연애하며, 죽는 것들의 구원”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죽는 연습’이라며 사형당하기 직전에 육체의 감옥을 벗고 이데아에 가까이 갈 수 있으므로 기뻐해야 할 여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구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일상이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라면 또 부모가 자신이 죽은 이후 자식의 삶을 걱정하듯, 무한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이라면 이 일상 안에 이미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요.”

그가 99년에 낸 시집 《랭보가 시쓰기를 그만둔 날》에서 끊임없이 세기말적 종말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책은 《랭보가...》의 ‘다음 작품’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지옥 같은 일상에서 아직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니라면, 아 니 어찌면 일상이 지옥이면서 지옥이 아닐 수도 있다면, ‘삶도 죽음도 아닌 시간’을 사는 것보다 구원을 찾아 ‘모험’을 나서는 게 나은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철학자의 궁극적인 ‘호기심’이 있다면 구원은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출판**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